

## 성인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환자의 신이식 예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진호 · 박지인 · 한승석 · 이정환 · 이정표 · 안규리 · 한진석 · 김성권

### Outcome of Renal Transplantation in Adults with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Jin Ho Hwang, Ji In Park, Seung Seok Han, Jeonghwan Lee  
Jung Pyo Lee, Curie Ahn, Jin Suk Han, Suhnggwo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ackground:**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FSGS)은 소아와 성인 모두에서 말기신부전의 흔한 원인이다. FSGS의 신이식 후 재발은 이식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FSGS 환자에서 신이식 후의 재발 및 임상적 결과에 대한 많은 논문이 보고된 바 있으나 외국의 경우이며 대부분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FSGS로 진단받은 성인환자들의 신 이식 후 예후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기관 예비연구이다.

**Methods:** 198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FSGS를 진단받고 신이식을 시행한 환자 34명 중, 증례분석이 가능한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인 소아발병군과 진단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인 성인발병군으로 구분하여 급성거부반응, 만성이식병증 및 재발의 발생을 비교하였고, 관찰 기간 중 투석이나 2차 신이식을 요하는 만성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를 이식실패로 정의하여 두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소아와 성인에서 신이식 후 혈청 크레아티닌 값을 이식 수술일 기준 4주, 3개월, 6개월, 1년 및 1년 이후로는 매 1년 단위로 최종 추적 관찰까지 정리하여 1/Cr을 구하고, 각각의 환자에서 1/Cr의 기울기를 산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Results:** 19명의 소아발병군과 7명의 성인발병군환자들을 분석하였다. 이식신 기능지연은 두 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급성거부반응은 두 군에서 각각 8명 (42.1%), 2명 (28.6%)에서 발생하였고 소아발병군에 비해 성인발병군에서 급성거부반응이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 $p=0.010$ ). 만성이식병증은 각 군에서 4명 (21.1%), 2명 (28.6%)에서 발생하였고, 소아발병군에서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 $p=0.049$ ). 재발은 소아발병군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총 3명 (15.8%)이었다. 환자 3명은 재발에 대해 면역억제제 변경 및 혈장교환술,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시행 하였고 그 중 2명은 완전 관해로 유지되었으나 1명은 43개월간 완전 관해 상태 유지되던 중 신기능 감소가 진행하여 2차 신이식을 시행하였다. 1/Cr의 기울기는 소아발병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기능의 감소가 더 저명함을 보여주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 $p=0.064$ ). 두 군에서 이식 실패는 각각 3명 (15.8%), 1명 (14.3%) 에서 발생하여 두 군간 이식신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Conclusion:** 서울대학교병원에서 FSGS로 신이식을 받은 성인환자들의 이식신 생존율은 소아환자들과 차이가 없었다. 향후 임상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신장 이식, 이식신 생존율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Renal transplantation